자본주의 삶과 공짜 십자가

(마태복음 17:22~27)

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5.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자본주의 삶과 공짜 십자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자본주의 삶과 공짜 십자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통하는 진리가 있다면 "공짜는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짜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총선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모든 관심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게 총선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준다면 몇 명이나 그 말을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혹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노사협의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애를 쓰고, 사용자는 인건비를 동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선하여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로써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의 차원을 넘어 현실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교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느끼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써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로 느끼고 사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들은 천국을 묻어버렸습니다. 교인은 이러한 세상의 관심사를 뚫고 천국을 현실로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 사실을 현실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관심사들에 의해 천국은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인의 과제는 이 묻힌 사실을 캐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묻혀버리는 현장이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선을 바라는 국회의원이나 임금이 오르기를 바라는 노동자나 임금을 동결하기 바라는 사용자나 모두 자본주의적 사회관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사회에서 천국을 묻어버리는 관심사는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돈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밀접하게 와 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한 이유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22~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가 성전세에 대한 가르침을 십자가 사건 예언 뒤에 가져온 이유는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세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세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태가 처음부터 이러한 연관성에 주목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유삼아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2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감동

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전세의 가르침을 연결시킨 데에는 성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존재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짜로 주어졌음에 주목합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본문은 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를 감동시킨 성령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정해진 율법적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세금이었고 성전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예수님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유대사회 내에서 정한 사람들로써 로마에 바칠 국세를 걷는 세리들과는 별개였습니다. 24~25절을 보면 이들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세금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내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말하기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아시고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시기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하여 실족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정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행여 사람들이 실족할 것을 염려하셨다면 앞서 나온 안식일 논쟁이나 정결법 논쟁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르셨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논쟁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족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따르는 모습을 보이시니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논쟁 때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탈세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과 충돌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 전통과 다른 이단적 사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신다면 결정적으로 “성전보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관심사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논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방해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돈은 하나님과 경쟁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표적 세상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오해가 벌어진다면 다른 논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일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애인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물을 경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강력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되었던 모든 논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라는 대상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돈과 얽힌다면 하늘을 향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땅에 있던 마음이 하늘을 향하기 위한 정거장과도 같습니다. 이 정거장을 지나쳐버린다면 하늘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지키지 않으셔도 될 규정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려질 것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과 돈이 얽매인다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관심은 간과되어 버릴 것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닌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구나. 돈을 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라고 생각하며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은 관심 또한 재생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13~1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의 황제조차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황제의 목숨부터 숨 쉬는 공기와 머리털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를 내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돈이 얽히는 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다가온 총선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지 못하도록 돈이라는 무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돈과 얽히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하나님과 관계된 논쟁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마다하지 않으셨으면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이 얽히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은 오히려 돈이라는 문제를 애초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공짜입니다. 복음은 돈과 어떠한 연관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돈과 연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도 돈과 연관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내는 것은 복음을 들은 값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발상은 복음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지의 삶이란 전적으로 돈과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망해서 돈이 없다고 해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십자가 복음은 공짜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입니다.

출애굽 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십 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떠올려보시기를 바

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을 통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망해서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유지된다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짜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과의 연결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무한대로 공급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학교수이든 학생이든 노동자든 경영자든 그 누구라도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일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안 드는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 예배당을 짓는 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단적 행위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필요한 것은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설령 모일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모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한다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헌금은 오히려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기쁘고 만족해서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 일이 의미가 없기에 남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의무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게 여길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헌금을 내시고 하나님이 내지 말라고 하시면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십자가 복음은 자본주의와 연관될 수 없습니다. 돈 돈 노래를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료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지 10년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본인께서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달라졌음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삶의 문제들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 목회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교인들의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욥처럼 맨몸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적도 있으신 목사님께서 여유와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십자가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병 걸린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돈 없는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말썽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로 주어진 십자가 하나를 가지고 살 때에 삶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사장님 학생 직장인 등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세상은 돈 돈 노래를 부르지만 공짜로 주어진 십자가 하나를 붙들고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귀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세상은 돈 돈 노래를 부릅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십자가가 공짜로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모든 문제를 너끈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현실로 삼고 가는 곳마다 알리며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